

첫날 30만...본선보다 뜨거운 예선?

〈전국〉

민주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흥행...홈피·콜센터 한때 마비도
광주시당·전남도당 현장 접수...동부권 접수처 추가 설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15일 신청자수가 광주·전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 단계부터 흥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주자 후보간 호남민심잡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청자가 예상 외로 대거 몰리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직접 방문 서류접수처 추가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신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15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일반 선거인단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 수는 전국에서 3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이재명 성남시장·최성 고양시장 등 4명으로,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모집은 ▲시·도당 당사 직접 방문 신청 ▲콜센터(1811-1000)를 통한 전화접수 ▲인터넷 접수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각 시장·도당 사무실에 서류 접수창구를 마련한 뒤 직접 방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날 서류접수 시작부터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광양·순천·여수 등 도내 동부지역에 직접 방문접수처를 추가 설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을 등록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가 한때 마비되면서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사무실에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등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앞서 이날 선거인단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ARS 전화 연결과 온라인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 선거인단에 최소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고 탄핵 정국으로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지지율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때는 108만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다.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단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예비후보간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구애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홍매화 ‘활짝’ 봄이 ‘성큼’ 낮 최고기온이 13도까지 올라가 푸근한 날씨를 보인 15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에 봄의 전령인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려 성큼 다가온 봄소식을 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당시 벌컨포 탄피 확보 헬기 기총소사 증거물 되나

기념재단, 국과수에 감정 의뢰

5·18기념재단이 M61벌컨포 탄피로 유력시되는 탄피를 확보, 분석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적인 감정이 이뤄지기 전이지만 37년간 의혹만 무성했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의 증거물로 판명날 가능성이 커보인다. 〈관련기사 6면〉

5·18기념재단은 최근 기증받은 탄피 3점을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탄피 종류와 발사 시점 등을 감정해 달라고 의뢰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5·18구속부상자 회원이기도 한 시민은 지난 8일 5·18재단에 탄피 3점을 기증하면서 “1980년 5월 24일 한두재(광주~나주남평 구간 고개)에서 주웠다. 심상치않은 탄피라 여태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3점의 탄피 크기는 길이 103mm, 직경 30mm로 동일하다. 5·18재단으로부터 탄

피 사진을 건네받은 국과수 측은 “M61 벌컨포 탄피가 유력해보인다. 광주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감정을 요청하면 해당 탄피 사용시기와 종류를 분석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M61벌컨포는 주로 항공기(헬기)에 탑재하며 분당 수천발씩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가 계엄군 상부로부터 헬기 벌컨포 사격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광주일보 1월 19일자 6면〉은 알려진바 있으나 벌컨포 사격 증거로 유력시되는 탄피가 나타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소총병에 의한 단순 총격과 벌컨포에 의한 헬기 기총소사는 그 무게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국과수 공식 감정과 기증자에 대한 심층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벌컨포 탄피 여부 및 518 관련성을 한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정남 살해 용의자 베트남 여성 1명 체포

말레이시아 경찰 5명 추적
北 관계자 사신 부검 참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 피살과 관련, 여성 2명과 남성 4명이 용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5·8면〉

15일 주요 외신과 말레이시아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들 6명을 ‘김정남 피살’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김정남 피살 현장 근처의 공항 폐쇄회로TV(CCTV)에 포착된 6명을 추적해왔으며, 이 가운데 여성 한 명

을 사건 현장 근처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내 저가비용항공사(LCC) 전용 터미널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여성과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미얀마 국적으로, 현지 일간 더선데일리지는 베트남국적이라고 각각 보도했다. AP통신도 체포된 용의자가 베트남 여성이라고 보도했다. 체포된 여성이 김정남을 독살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15일(현지시간) 김정남 사신 부검이 진행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병원(HKL)에는 북한대사관 관계자들이 방문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귀걸래...
가스총 들고 싸운 이웃사촌 ▶7면

남도, 시간 속을 걷다
‘태백산맥’ 1935년 보성여관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주일보 since 1952 65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Music from PyeongChang

정명화 | 손열음 | 신지아

2017년 3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대극장

R석 77,000원 | S석 66,000원 | A석 33,000원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가
첼리스트 정명화

뛰어난 통찰력과 한계없는 테크닉
피아니스트 손열음

K-클래식의 대표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ticketmaru.co.kr/1588-0766) | 주최 광주일보 · 아시아문화 | 제작 WCN WORLD CINETWORKS